

들녘엔 노인들만... '양로원' 방불

문에 "가정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무슨 가정의 달이냐"며 반문한다.

그래도 농사에 뜻을 두고 있거나 늙은 부모님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촌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집안은 늘상 결혼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최씨는 말한다.

농업을 살리겠다는 뜻을 가지고 살고 있는 최씨도 70가까이 된 부모님으로부터 "농촌에 있으면 총각귀신된다"며 도시로 나가라는 압력을 받는다.

3남2녀 중 막내로 형제들은 모두 직장을 구해 도시로 나간 후 노부모와 함께사는 최씨도 '결혼걱정' 때문에 최근 마산으로 나가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며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도 결혼걱정 않고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도록 해야한다"며 호소.

그는 자신은 그래도 나이가 아직 많은 축에 속하지 않지만, 35세 정도가 된 동네 형님뻘 되는 총각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꽃피는 5월은 농번기로 너무나 바빠 이래저래 가정의 달은 농촌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사실 오늘날 농촌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정 자체가 성립 안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이다.

농산물수입개방 농정부채 등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농촌몰락은 연간 50여만에 이르는 광범한 이농을 불러오고, 특히 젊은 층의 이농, 미혼 자녀의 도시취학, 또는 도시취업 등으로 농촌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농촌가정의 해체

는 농촌인구의 노령화라는 말로 표현되고, 농촌에는 노인부부 혹은 노인독신가구를 현저히 증가시켰다.

지난 80년에서 88년까지 8년 동안에 농가인구는 3백55만이나

면 전체 농가와 농민 중 30% 이상이 노인들만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3년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렇듯 농촌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증가는 농촌의 전원적 환경과 그동안 수십년간 맺은 인간관계 등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거대한 양로원' 같

모든 사항을 농촌노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때문에, 생업업동·심리적 고독·무기·세탁 등의 가사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는 또 5월8일 어버이날 경로주찬을 맞아 경로행사를 했지만 전반적인 사회풍조가 농촌노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촌노인 부양을 위한 가족기

교육비 또는 취업준비금, 실업시의 생계비 보조등으로 농촌의 부모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이는 도시의 농촌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 '착취기재'라고 알려져 있듯이 농촌을 더욱 가난한 곳으로 만드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85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부모를 둔 고등학생의 32%와 대학생의 84%가 부모결혼은 떠나 생활하고 있고, 이들 중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경우는 3.3%에 불과했다.

이들은 농촌의 가계비 중 교육비부담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사춘기의 예민한 시기에 부모들로부터 떨어져 정서적으로나 생활상으로 많은 불안요인을 갖고 있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농촌

전체 농가 중 30% 이상이 「노인가구」 젊은층 이농 계속 : 곳곳에 텅빈집

뚜렷한 대책 없어 「농촌피폐」가속화 될 듯



◇ 지난 80년에서 88년까지 8년동안 농가인구는 3백55만이나 감소 하였으나 55세이상 농가인구는 오히려 13만명이나 증가했다.

은 농촌에서 자녀·손주들과 떨어져 사는 소외와 고독감은 크지 않을 수가 없다.

경북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의 배용진씨(58)는 인근의 목욕탕에서 혼자 때를 밀고 있는 80세가 넘는 노인을 도와주면서 "노인들은 옆에서 아무리 잘 해줘도 늙었기 때문에 서러운데, 자기 분신과 같은 손자 재롱도 못보고 혼자 연명하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숨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대가족제도"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날 농촌노인방치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서글퍼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이영대씨(농촌사회복지실 책임연구원)는 "농촌노인들은 허리가 휘청거리도록 일하고 논밭팔아 자식들을 공부시켰으나 자녀들은 도시에서 살면서 경제적인 여건 등의 이유로 명절때나 부모들을 찾아본다"며 농촌노인에 대한 관심과 복지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

그는 "농촌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서적, 경제적인 면의

능강화 ▲경제적 복지방안 강구 등 획기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농촌인구노령화와 나란히 농촌가정의 존립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문제가 농촌총 각 결혼문제다.

농촌총각들이 제 짝을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려면 농촌은 활기를 띠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총각들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결혼하기가 어렵다.

농촌에서 농민들을 쫓아내겠다는 정부정책과 사회경제구조의 회생이 된 농촌젊은이들은 농촌각으로 숨거나 결혼을 위해 단기간 이농하는가 하면, 아예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

농가에서의 부모·자녀관계는 도시가정에 비해 일절 단절된다. 농촌사회가 충분한 교육 기회와 취업기회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의 자년들은 취학·취업을 위해 도시로 떠나 별거가족으로 생활한다. 물론 도시로 떠난 이들 자녀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부모와 합류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더군다나 이들 자녀들에 대한

물론 부모결혼을 떠난 근로청 소년들도 정상적인 가정분위기 속에서 있지 못하고 경제적 생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쉬운 청소년 문제, 향락산업 취업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농촌상황에서 UR등 농산물 수입개방은 농촌가정의 해체를 더욱 더 가속화하고 있다.

37세가 된 경북 청송의 한 농촌 총각은 장가가기 위해 도시로 나갈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농촌에서 늙은 부모 모시고 농사짓고 있는 것이 무슨 천벌을 받을 죄"이라며 농민의 자존심 때문에라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주장!

농사를 지으며 노부모 모시고 효도하는 농촌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풍토가 계속되는 한 가정의 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농촌·농업을 살리는 방안과 함께 농촌가정을 살리는 획기적 방안을 찾지 않으면 이제 농민 가정은 급속히 쇠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순중양 기자>

전남 무안읍 성암리 인동부락에는 약 30호 정도가 있는데 가장 젊은 사람이 54세이다. 인근 무안군 몽탄면 학산리 1구의 총 50호 정도 농가 중에는 애기 낳을 수 있는 부부가 사는 집은 단 한 집밖에 없다. 그의 여자 노인네 혼자 사는 집이 7집, 남자 노인네 혼자 사는 집이 한집, 노부부만 사는 집이 6집이고, 텅빈집도 5집이나 폐허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 마을의 최병상(45)씨는 "영산강 중류이고 경지정리도 잘 되어 있어 농사짓기도 좋은 지역인데 다 떠 나버렸다"며 이 지역 뿐 아니라 농촌 전체가 황폐화 되고 거대한 양로원 같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그는 또 "농촌에는 애기울음 소리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고, 혹시라도 애기가 있으면 할머니들이 서로 안아보려고 한다"며 농촌에서 아예 가정 자체가 해체되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와 했다. 전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의 총각 최삼돌(30)씨는 농촌에서 가정의 달이 어떤지에 대한 질



감소하였으나 55세이상 농가인구는 오히려 13만명이나 증가했다. 전체 농가인구중 55세이상 노인의 비율도 80년 15%에서 88년 24%로 증가했다. 특히 88년의 한 조사에 따르